

제약13사, 중남미 의약품 전시회 참여

국내 제약기업들이 중남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.

8월 26-28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<2009 중남미 원료 의약품 전시회>에 국내 제약기업 13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원료 의약품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행사로 꼽히며, 2008년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첫 전시회가 열린 바 있다.

앞으로는 브라질과 중남미 인접국에서 번갈아 열릴 예정이며, 2009년 전시회는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다.

한국을 비롯해 세계 17개국에서 250여개 제약기업이 참가해 원료 의약품과 완제품, 관련 서비스 및 출판물 등을 선보였다.

김건영 KOTRA 상파울루 비즈니스센터 센터장은 “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의약품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, 2008년에는 시장 규모가 연간 465억달러에 달했다”고 설명했다.

또 “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들이 지속적인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공략에 나선다면 중남미 지역이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열릴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8/28>